

국립국어원 소식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 프리퀄(prequel)의 다듬은 말: 전사편(前史篇)
- 러키 드로/럭키 드로우(lucky draw)의 다듬은 말: 행운권 추첨
-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의 다듬은 말: 열린 주민회의
- 네티켓(netiquette)의 다듬은 말: 누리꾼 예절

‘프리퀄’은 원작의 전사(前史, 이전의 역사, 이전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넓게는 속편에 포함되는 작품을 이르는 외래어이다. ‘전사편(前史篇)’으로 다듬었다. ‘러키 드로/럭키 드로우’(규범에 맞는 표기는 ‘러키 드로’)는 행사장 등에서 번호표나 추첨권을 주고 무작위로 추첨하여 정해진 상품을 나눠 주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행운권 추첨’으로 다듬었다.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지역 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초대되어 관련된 공직자 또는 선거 입후보자들의 설명을 듣고, 중요한 정책이나 화제가 되는 사안에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회의를 말한다. 지역 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살려 ‘열린 주민회의’라고 다듬었다. ‘네트워크(network)’와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인 ‘네티켓’은 인터넷 공간에서 누리꾼(네티즌)들이 지켜야 할 예의범절로, ‘누리꾼 예절’로 다듬었다.

2. 국립국어원과 겨레말큰사전,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립국어원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사장 고은)는 8월 14일(금)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우리말 문화유산의 정비와 통합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그동안 남북 언어 연구와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국립국어원과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뜻깊은 행사이다. 특히 초청 인사인 중국의 리싱젠(李行健) 선생이 중국과 대만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중화어문대사전》¹⁾의 편찬 과정과 성과에 대해 발표해 현재 남북이 함께 편찬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을 비롯한 남북 문화 교류 및 협력 사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졌다.

본 행사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인 권재일 교수(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남북한 언어문화의 현실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비롯해 모두 7편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재일동포의 언어 교육과 남북문제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재일동포 학자 조의성 교수(일본 도쿄외국어대학교)의 발표와, 독일의 동서독 언어 통합 정책에 관한 최경은 교수(연세대학교)의 발표는 국외 사례 연구를 통해 남북 언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는 의의가 있었다. 그리고

1) 2009년에 중국, 대만 양안은 '중화어문 기본서'를 편찬하기로 합의하고, 2012년에 《양안상용사전》을 출판했다. 현재는 여기에 표제어를 추가하여 약 13만~15만 표제어를 수록한 《중화어문대사전》을 공동 편찬하고 있다.

남북 언어 교류의 생생한 현장인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대표(김용태 에스케이패럴)로부터 남북 산업 교류 현장에서 통일된 전문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직접 들어 보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밖에 북한 언어문화 전문가인 전영선 교수(건국대학교), 북한어 말뭉치 전문가인 소강춘 교수(전주대학교)의 발표도 앞으로 남북 언어 통합 정책 수립을 위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남북 언어 통합의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주요 업무 계획 발표

국립국어원 제10대 원장으로 취임한 송철의 원장은 2015년 7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하고 국민에게 정제된 언어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언어 복지 혜택을 늘리는 ‘쉽고 편한 우리말 가꾸기’ 계획을 발표했다.

3.1.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국어 만들기에 주력

이번 발표회에서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3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한글 맞춤법〉(1988) 등 어문 규정이 고시된 후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규범과 현실 언어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문 규범을 유연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지키는 범위에서 복수 표준어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매해 연말에 발표한다. 또한 규범적 표현에서 변화된 현실의 표현 방식이나 신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사전 등에 정기적으로 반영한다. 최근에 ‘도긴개긴’ 등을 사전에 등재하고 ‘너무’의 긍정적 쓰임을 인정한 것도 그런 방향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리고 국민의 현실 발음을 조사하여 발음이 혼란스러운 단어 등 현실 발음을 검토, 수용하고 어문 규범 개선을 위한 조사, 검토 위원회를 상시 운영한다.

한편, 분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단 이후 세대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남북 언어 이질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통일 후 언어생활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한민족 간의 언어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 등의 언어 적응을 적극 지원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 이탈 주민 등의 언어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남북 언어 전문가를 양성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교육 자료 개발에도 힘쓸 것이다. 또한 남북 공동 국제 학술회의 정례화 등으로 남북 언어 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어 말뭉치 구축,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및 분석, 남북 공동 순화 등 남북 언어 기초 자료도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3.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 구축, 운영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은 개방성을 갖춘 국민 참여형 사전으로 2016년 10월 이후에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사전은 신어 등을 국민의 참여 등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 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대부분의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한 우리말 지식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 사전은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50만 항목에 실생활 용어와 전문용어, 방언 등 50만 항목을 합해 100만 항목을 기본으로 구성했고,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 내용들에 대한 교정·교열과 감수를 진행하고 있다.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은 다변화된 사회에서 표준어 외에 다양한 실생활 언어 정보를 원하는 사전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사용자도 함께 참여하여 실생활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다양한 표현을 집대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문 규범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의 콘텐츠는 위키 백과사전과 마찬가지로 자유 저작권 정책(CCL)을 채택해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3.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언어 복지 강화

농인(청각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환경 및 문화 향유 기반은 지체 장애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그래서 대표적 문화 시설인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한 내용적 접근도 더욱 어렵다. 농인과 농인의 모어인 수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 또한 취약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법안〉이 2013년에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공공 문화 시설에 대한 농인(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적인 공공 문화 시설인 박물관을 대상으로 주요 전시품에 대한 해설을 수어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 동영상을 웹으로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우선 2015년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2016년 이후에는 지방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자료 구축과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

에도 살아 있는 수어 자료인 한국 수어 말뭉치(코퍼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수어 웹사이트도 구축하여 농인의 고유 언어인 수어에 대한 사용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어, 점자 등 특수 언어에 대한 표준화, 정보화, 사전 구축, 전문가 양성, 교육 체계 정비 등 다각도로 시청각 장애인의 언어 인권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여 중장기 사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4. 우리말을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언어로 가꾸어 나갈 터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한국어가 처한 환경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알맞은 언어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하면서 “어문 규정을 비롯한 국어 생활의 표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한국어가 편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민족어 통합의 밑바탕을 다지는 한편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을 통해 국어 지식을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할 것이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장애, 가난, 이민 등의 이유로 한국어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세계인의 언어로서 한국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다짐하였다.

4.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위치: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자료 찾기’ → ‘연구 결과’ → ‘기타 자료’ → 검색: 검색어 ‘실무소위’
-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2차 심의 확정안(2015. 5. 29.)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3차 심의 확정안(2015. 6. 5.)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4차 심의 확정안(2015. 6. 12.)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5차 심의 확정안(2015. 6. 19.)
- 제121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2015. 6. 24.)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6차 심의 확정안(2015. 7. 17.)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7차 심의 확정안(2015. 7. 27.)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8차 심의 확정안(2015. 7. 31.)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19차 심의 확정안(2015. 8. 10.)
-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20차 심의 확정안(2015. 8. 14)

5. 국립국어원, 엔씨소프트문화재단과 업무 협약

국립국어원은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이사장 윤송이)과 지난 8월 6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엔씨소프트문화재단에서 국어 관련 지식 정보에 대한 좀 더 편리한 접근과 활용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이 다양한 국어 지식 정보를 게임 등 최신 정보통신 기법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어 정책 전문 기관인 국립국어원과 주요 게임 회사가 만든 비영리 재단인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이 지속적인 협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선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은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어문 규범 정보를 게임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민이 재미있는 게임으로 어문 규범을 생활화하고 좀 더 다양하고 정확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게임 이용의 결과를 통한 기부 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말 퀴즈 게임을 구축한 다음, 사용자들이 이 게임에서 퀴즈를 풀어 일정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달성 목표에 따라 재단에서 다양한 기부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의 공익 활동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에서는 게임의 주요 콘텐츠가 되는 국어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게임 환경에 적

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맡음으로써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 기관) 국어 지식 정보 및 각종 관련 자료의 공유
- (엔씨소프트문화재단) 국어 지식 정보와 관련 자료의 가공, 보급
- (국립국어원) 국어 지식 정보와 관련 자료의 제공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국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국어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어 어문 규범과 게임 그리고 기부를 아우르는 새로운 기능성 게임 모델은 9월부터 본격적인 기획 및 개발 작업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될 예정이다.

6. 2015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원 연수회 개최

국립국어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서울 양재동에 있는 더 케이(The-K)호텔에서 '2015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귀화 준비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연수회는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²⁾을 운영하는

2)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어 과정 및 한국 사회 이해 과정 이수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여 이민자와 내국민 간 갈등을 방지하

한국어 교원 50명과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³⁾ 소속 한국어 교원 50명이 각각 참가했다.

6.1. 기관별 특성에 맞춘 참여형 한국어 교육 연수 프로그램 진행

개회식과 폐회식을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수회는 기관별 교육 수요에 따라 각각 별도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연수회별 주제를 살펴보면 사회 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연수회는 ‘언어권별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 교실 운영 방안’,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한국어 교원 연수회는 ‘한국어 문법 교육 이론 및 실제’였다.

이번 연수회의 프로그램은 지난 연수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전문 강의·주제 특강·소그룹 주제별 분임 활동·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사회 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대상 연수회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강의	특강 1: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법론 특강 2: 중국어권 한국어 교육-대조언어학을 통한 한국어 발음의 이해 특강 3: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교사-학생 상호 작용 방안 강연: 이민 통합 정책의 이해
분임 활동	분임별 주제에 따른 교육 방안 개발 및 발표

고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 통합 실현을 위해 2009년부터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이다.

- 3)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전국 217개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가족 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그중 한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결혼 이민자·중도 입국 자녀에게 국립국어원 개발 교재를 표준 교재로 사용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분	내용
문고 답하기	한국어 교육 관련 전 영역 (사전에 질의 수합 후 선정된 질의에 한정해 답변하는 방식)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관람 및 체험 활동

[표 2]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한국어 교원 대상 연수회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특강	특강 1: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위한 유사 문법 교육 방법 특강 2: 한국어 문법 교육 자료(교재 및 부교재) 개발 및 활용 방법 특강 3: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론 강연: 국립국어원 개발 교재 및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 학습 센터 소개
분임 활동	분임별 주제에 따른 교육 방안 개발 및 수업 시연
문고 답하기	한국어 교육 관련 전 영역 (사전에 질의 수합 후 선정된 질의에 한정해 답변하는 방식)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관람 및 체험 활동

6.2. 한국어 교육의 선도 기관으로 핵심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

한국어 교육 선도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원의 자격 관리와 국내외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를 통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 개발 뿐 아니라 다문화 시대의 언어 교육 정책 환경을 조사하고 수립하기 위한 교육 현장 조사,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원(재)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시대의 언어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7. 인사 이동

7.1. 임명

- 송철의(국립국어원장): 신규 임용(2015년 5월 26일~2018년 5월 25일)

7.2. 전보 발령

- 정창업(사무관): 교육연수과 → 국립중앙박물관(4월 27일)
- 이정희(행정주사보): 어문연구과 → 국립중앙박물관(4월 27일)
- 서광철(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실 → 교육연수과(4월 27일)
- 김경선(행정서기): 국립중앙극장 → 어문연구과(4월 27일)
- 정상만(행정주사): 기획운영과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7월 1일)
- 원경덕(행정주사): 국립중앙도서관 → 기획운영과(7월 1일)
- 이민서(사무운영서기):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실 → 교육연수과(7월 1일)
- 이운영(학예연구관): 어문연구과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실(7월 27일)
- 강미영(학예연구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실 → 어문연구과(7월 27일)
- 이기연(학예연구사): 공공언어과 → 교육연수과(7월 27일)
- 이유원(학예연구사): 교육연수과 → 어문연구과(7월 27일)
- 김형배(학예연구사): 어문연구과 → 공공언어과(7월 27일)

7.3. 퇴직

- 민현식(국립국어원장): 임기 만료(4월 13일)
- 이경숙(사무운영주사보): 교육연수과 → 사무운영주사 승진, 명예 퇴직(6월 30일)
- 김세중(학예연구관): 어문연구과 → 명예퇴직(8월 31일)